

광주서 대선 진두지휘 하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인터뷰

“지역예산 챙겨 호남 진정성 보이겠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9일 “앞으로 지역예산 적극 반영 노력 등을 통해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치가 변화와 혁신의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호남더러 새누리당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새누리당이 호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23일부터 당 대표실을 여의도에서 광주시당으로 옮겨 47일 동안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직무를 보고 있는 황 대표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가능한 광주에 더 머무르면서 지역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 상주하면서 느낀 호남 민심은.

▲우선 따뜻함과 친절함에 놀랐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호남을 ‘동도’로만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민들과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호남을 공부하고 있다. 지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에서 중앙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다. 큰 소독이다.

따라서 대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도 이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다. 국가적으로도 정치가 변화와 혁신의 시기인데, 호남 상주 기간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호남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번 대선 전후가 새로운 역사의 태동기라고 본다. 지난 50년 정리하고 새로운 50년을 여는 중추대환 시기다. 과거사도 정리하고, 동서통합도 이뤄야 한다. 더 이상 고향 따지고, 본적 따지는 일을 없애야 한다. 항상 국가의 변화와 혁명적 시기에 호남이 앞장섰다.

현재 호남 민심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고 하는 마음이다.

이제 호남더러 새누리당이 되어달라고 해서 안 된다. 새누리당이 호남이 되어야 한다. 그 래야만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이 또 한번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줄 것 이라고 믿는다.

시대정신을 잘 받들고 호남이 중심이 되는 민심의 변화를 잘 읽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 드는 게 새누리당의 역할이다.

-지역민들은 새누리당의 ‘호남 구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진정성에 대해서는 새



새누리당이 호남 되어야

그래야 한국정치 바뀌어

당·공직 인사 탕평 앞장

‘호남 구애’ 의심 씻겠다

새누리당이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 대표로서 호남이 당 운영의 중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당직과 공직 등 인사 탕평에 앞장설 것이다.

지역예산도 마찬가지다. 제가 광주에 상주하는 것도 호남의 예산과 공약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선 때문에 예산이 미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듣는 대로 당과 즉각적으로 협력해 (예

산을)챙기고 또 챙길 것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가능한 광주에 더 있을 것이다. 지역을 더 많이 돌아보며 호남을 더 공부하겠다. 새누리당도 뉴프런티어 정신으로 확장성 있는 당이 되려면 호남의 혼에 깊숙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17대 대선 당시 호남에 많은 공약을 했지만,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다. 박 후보의 호남 공약 이행 가능성은 충분한가.

▲박 후보와 이 대통령과 다른 점이 이 부분이다. 박 후보는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든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박 후보만의 독특한 고집스러운 원칙이다.

4·11총선 당시 박 후보가 내세운 공약도 100일 안에 법안과 예산을 반영할 정도로 추진력이 있다. 이번에도 대선 공약을 많이 제시했다. 하지만, 후보가 까다롭게 공약을 따진다.

이 때문에 당과 후보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박빙인 선거인데도 박 후보가 공약 이행 가능성을 엄청나게 따지기 때문이다.

약속과 신뢰를 우선시하는 후보여자인지, 이행 가능성을 따져 공약도 선정하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공약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향후 지역에서 활동 계획은.

▲마지막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살피고, 선거 막판까지 매듭을 잘 짓고 심판을 받겠다. 선거가 끝나도 호남에 대한 공부를 더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민들이 ‘새누리당이 호남을 잘 알고 있구나’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뒤 광주에 더 머물면서 뒷정리를 할 것이다. 약속한 것이나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직접 챙길 것이다. 호남을 대표할 사람이 당 내에 없기 때문에 당 대표 소관사업으로 직접 챙기겠다.

인사도 적극 챙기겠다. 광주에 상주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 본적만 호남이고, 지역을 모른 채 수도권에서만 살아온 인사를 등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지역에서 많았다. 무늬만 호남사람을 채용하고, 호남차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역에서 활동한 인사를 등용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지역정책이나 현안이 정확히 해결될 것이며, 이런 인사를 하게 되면 중앙 인사들이 지방으로 내려와 지역발전에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0만표차 승부... 광주가 뜨거워져야 文 승리”

정동영 17대 민주대선주자가 본 18대 대선

“광주가 뜨거워져야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정동영 상임 고문은 9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50만표(전체 투표율의 1.5%) 내외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고문은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지지 선인 전후로 광주·전남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며 “지난 주에는 박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안타까움과 체념의 분위기가 있었지만 안 전 후보의 지지가 이뤄진 이번 주에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의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이어 “부산에서 뇌관이 불 붙으면 광주에서 화약이 터져 수도권에 불타오르게 되면서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현세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고문은 “이번 대선에서는 재벌 등 기득권 세력과 수도권 언론, 새누리당 등 3각 연대로 이뤄진 수도권 연합이 강고하게 형성됐다”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일본의 자민당처럼 수구·기득권 세력의 장기 집권을 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안 공동정부에 대해, 정 고문은 “이는 권력이나 지분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함께 하는 ‘가치연대’적 성격이 크다”며 “안 전 후보의 성향을 감안할 때, 결코 권력을 나누자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 고문은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문 후보의 당선에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다면 인구 등을 감안한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민주당 정부가 성공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구도도 크게 완화되면서 호남 후보가 당당하게 대선 출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을 감타하고 있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정 고문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 실망한 민심이 민주당이 아닌 안철수를 통해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민심이 근본적인 책임이 크다”며 “대선 직후,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등을 통한 정치적 기득권과 승자 독식주의를 타파하는 정치 시스템 개혁에 민주당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역사의 위기마다 호남 민심은 분집을 깨물어보고 분연히 일어섰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민심이 민주개혁 진영의 집권을 이뤄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北 “로켓발사 시기 조정 검토”

중반대·강추위·기술적 결함 원인 가능성

북한이 이달 10~22일 발사를 예고했던 장거리 로켓의 발사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은 발사 시기를 조절하도록 한 ‘일련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했으나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중단을 촉구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 몰아닥친 강추위가 원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평양의 8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였다.

또 북한 당국이 발사 준비 막바지 단계에서 우리 나로호 때처럼 기술적 결함을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취한 수준의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7일 보도했다.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경제 동결 대상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토의정서 2020년까지 연장 합의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195개국은 8일(현지시간)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총회 의장인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카타르 총리는 폐회 예정일을 하루 넘긴 이날 교토의정서에 2차 공

약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합의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은 올해까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공식 인준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상가,단독주택,원룸,모텔 토지(대지/전/답/임)특수물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부와 공동학군!

이시공인중개사 팝니다..토지,전답,임야등 *담양군 담양읍 화동리 뽕나무밭 1만평 P당 3만원 *광주 신기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194P P당390만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홈플러스 인근 병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급매 상가/원룸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원세794만 ▶1층 편의점 1개 원룸 21개,투룸 4개 ▶토지면적 : 330.58㎡ (100p) ▶건축면적 : 737.19㎡ (223p)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담양” 무인텔 대지 : 5,048㎡ 연건평 : 2,474㎡ 객실 : 32개 현성업종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